

# 나물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특효약 발견

## 부작용 없는 식물보조치료제 큰 각광 기대

나물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는 약성분을 발견하는 등 영남대 산학 공동 연구개발이 큰 성과를 낳고 있다. 영남대는 최근 약학대학 장현욱(張炫勳, 51, 약학부) 교수팀이 과학기술부의 지원아래 3년여간 건강식품 생산업체인 (주)한국 파마와 공동 연구를 수행한 끝에 '수리취' 등 나물류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진통, 소염 등)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난치성 염증치료제는 장기간 약물투여가 필수적이기에 누구나 즐겨먹는 나물 등 부작용이 없는 식물 보조치료제는 큰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학대학 이승호(李承浩, 45, 약학부) 교수도 '토후박'이라는 국내 자생식물에서 미백기능이 탁월한 '마치린 A'라는 성분을 추출한

화장품 첨가물을 개발, 유명 화장품회사인 (주)LG생활건강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영남대 의과대학 안면환(安冕煥, 51, 정형외과학교실) 교수팀이 척추손상, 척추기형, 퇴행성 골절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보철물을 개발, 이를 재활의료기기 전문생산기업인 BK메디텍에 기술 이전을 하는 등 산학연계 신기술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들어 류마티스 치료제로 몇 종의 생약혼합 추출물을 사용한 의약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식용인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어 환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 장 교수의 연구팀은 이 식물로부터 스테롤과 지방산 계열 등 11종의 단일물질들을 분리해 동물실험 결과를 거쳐 이미 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으로 업체와 공동으로 2년간의 추가 연구를 거쳐 시판에 나설 방침이다. 장 교수는 또한 꽃향류, 솔장다리, 모란꽃, 짚신나물, 노루오줌 등 국내 자생식물 7종에서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관련분야 연구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장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매출은 2009년 66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 등 25개 특정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는 사용되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에는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담즙 및 담낭, 한약재로 쓰이는 사향과 마황, 부자, 독사의 독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또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것, 인체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리작용이나 부작용이 강한 원료,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원료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관련 규정을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람 태반, 사향, 건강식품 사용 금지

#### 복지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원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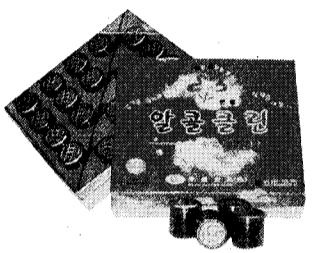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 등 25개 특정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는 사용되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에는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담즙 및 담낭, 한약재로 쓰이는 사향과 마황, 부자, 독사의 독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또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토종약초를 이용한 신도불이 생약 '알콜크린'이 과음후 속쓰림이나 두통에서 벗어나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속취해소용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약협회 임실군 지부장 위풍관은 지난 7월14일

보조제인?니코클린?과 기력회복제인 '장생방?도 최근 연구개발을 끝내고 곧 생산에 들어가 시판할 예정이다. '선한 세상?선한 물질?을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갖고 이번에 식품회사를 설립한 위풍관 지부장은

### 신도불이 생약 '알콜크린' 속취해소 탁월

'(주)생약식품'이란 이름의 식품공장 창업식을 갖고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생약성분의 발명특허출원식품인 알콜크린을 생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적의 식품으로 불리울 만큼 그 효능이 탁월한 알콜크린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하고 전북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전국총관을 맡고있다.



앞으로 한국생약연구소의 설치, 운영과 함께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약재배 장려사업, 각종 생약식품 제조 및 판매는 물론이고 토종생약 가공 출하와 각종 생약종묘, 종자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위 지부장은 "사라져 가는 우리토종 한약재를 살리고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런 신도불이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0여년 이상을 생약재배와 생약개발 연구에 몰두해 온 위풍관 지부장은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순수 국내산 약초를 원료로 신도불이 전통의학을 실현해 가고 있는 생약산업의 선두주자다. 온통 양약에 함몰돼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다양한 종류의 생약개발에 발벗고 나선 위지부장은 알콜크린 외에도 금연

대표는 "우수전통식품으로 선정된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고인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시고 난 후 두통 등 속취가 없는 약주로 이를 찾는 애주가들의 손길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산상품은 360ml, 800ml, 1천500ml 등 3가지와 선물세트 등이다. 영월더덕영농조합 이상국

대표는 "우수전통식품으로 선정된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고인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월 '동강더덕주'를 아시나요?

"강원도 영월 동강더덕주를 아시나요" 최근 동강더덕주가 청와대 선정한 우수전통식품의 하나로 뽑히면서 애주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강더덕주는 술빛은 마을 주천면(酒泉面)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이 지난 99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약주다. 본초강목에 거담약 사삼(沙蔘)으로 기록되어 있는 더덕은 예로부터 혈압강하, 보폐, 진해, 항암 등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석회암지대인 영월지역에서 자생하는 더덕은 맛과 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월더덕영농조합은 이 자연산 영월더덕에 한약재를 첨가하고 지하 100m 암반수로 술을 빚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더덕향이 물씬 풍기는 더덕주는 술을

### 생약성분 '신바로메틴' 美물질특허 골관절 치료 및 신경재생효과 탁월

한의학에서 퇴행성 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골관절질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순수 생약 성분이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다. 자생한방병원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는 추나약물에서 분리 추출한 '신바로메틴' 성분이 골관절 치료 및 신경재생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 물질특허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거쳐 '신바로메틴'의 효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이 성분을 각종 골관절 치료제의 주요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신바로메틴이 소염 작용은 물론이고 손상된 뼈 재생에 효과가 있어 한방 약물 치료만으로 골관절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마비를 억제하는 효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순수 한방 생약 성분으로 수술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미국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한방 약물치료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취해소 음료제조법 특허 따내

#### 충남 공주군 이기범 지부장

충남 공주군 이기범 지부장(황금약초농장 대표)은 헛개나무를 이용한 속취해소음료 제조방법으로 지난 5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제0385844호)를 획득했다. 일명 '지구자'로 불리는 이기범씨의 헛개나무 추출액은 그동안 술독을 풀고 간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속취제거에 좋다는 헛개나무를 지난 95년부터 재배, 현재 2만5천평의 농장과 10만평의 계약재배

농장에 심어놓고 3년전부터 '원간보(元肝補)'라는 제품으로 출시해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지부장은 내친김에 각종 약초를 한 곳에서 채취 학습할 수 있는 약초수목원을 개설할 계획이다.